

F1 입장권 할인 판매

F1대회조직위원회는 21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한카드와 함께 온라인(옥션티켓과 G마켓 티켓) 결제 시 할인(일반회원 10%, 탑스회원 20%)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대회를 추가,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12~18%까지 특별 할인한다.

/김우관 기자
5.0 X 8.2 cm

전남 유기농 제품 홍콩 진출

과자·건강선식·음료 등 18만달러 수출

전남도는 21일 홍콩에 유기농과자와 전통발효 음료 등 친환경 농산물 18만 달러를 수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홍콩의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전문수입유통회사인 마케돈 힐 대표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상담회를 통해 담양 산들촌의 유기농과자·시리얼 등 11만 달러와, 보성 강산농원의 산야초 효소·건강 선식류 7만 달러를 수출하게 돼 앞으로 전남 유기농 제품의 홍콩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담양 산들촌은 농산물 품질관리

원에서 인증한 국내산 쌀과 보리·수수·참쌀 등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고 2009년 농수산식품부에서 유기농 가공 인증기업으로 유기농 딸기스낵, 달콤한 과채 시리얼 등 12개 품목을 생산해 유아용 전문매장에서 인기가 높다.

보성 강산농원은 1999년 설립, 23개 농가가 참여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산들바람 생식, 자연초 한 끼 생식, 1주 보식 등 다이어트에 좋은 제품을 개발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현석 기자 hskang@inibo.com

10.1 X 9.2 cm

광남일보

2012년 08월 22일 (수)
02면 중합

“F1 입장권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F1 입장권,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구입해 즐겁게 관람하세요.”

F1대회조직위원회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런던 올림픽이 종료됨에 따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F1조직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와 함께 온라인(옥션티켓과 G마켓 티켓) 결제 시 할인행사(일반회원 10%·탑스회원 20%)를 펼치고 있다.

스포츠 관람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대회를 추가,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 시 구매 금액별로 12~



신한카드 10~20% 할인·저소득층 바우처 활용

18%까지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올해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입장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준비해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에 F1대회 관람이 가능하다”며 “예년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2012 F1한국대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

한편 2012 F1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개최된다.

F1조직위는 관람객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케이팝(K-Pop) 콘서트를 금요일·토요일 2회 연속 개최하고 F1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골프장, 도내 유명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성창 기자 hong@

F1 조직위 “입장권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10~20% 할인 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 도입 저소득층엔 바우처 활용...단체 할인 혜택도

‘F1 입장권을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즐겁게 관람하세요.’

F1대회조직위원회는 여수 세계 박람회와 런던 올림픽이 종료됨에 따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보다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F1조직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와 함께 온라인(옥션티켓과 G마켓 티켓) 결제 시 할인행사(일반회원 10

%·탑스회원 20%)를 펼치고 있다.

또 스포츠 관람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대회를 추가,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 시 구매 금액별로 12~18%까지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F1조직위는 관람객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케이팝(K-Pop) 콘서트를 금요일·토요일 2회 연속 개최하고 F1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골프장, 도내 유명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올해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입장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준비해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에 F1대회 관람이 가능하다”며 “예년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2012 F1한국대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2 F1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오지남 기자

ocn@namdnews.com

26.0 X 8.4 cm

무등일보

2012년 08월 22일 (수)
02면 중합

F1 입장권 싸게 사세요

조직위, 신한카드 이용시 할인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 포함

“F1 입장권,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구입해 즐겁게 관람하세요.”

F1대회조직위원회는 여수 세계 박람회와 런던 올림픽이 끝남에 따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F1조직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와 함께 옥션티켓과 G마켓티켓 등 온라인 결제시 일반회원 10%, 탑스회원 20% 할인을 해주고 있다.

또 스포츠 관람 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대회를 추가, 9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 시 구매 금액별로 12~18%까지 특별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2012 F1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개최된다.

F1조직위 관계자는 “올해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입장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다양한 할인혜택까지 준비해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F1대회 관람이 가능하다”며 “예년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2012 F1한국대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성훈기자

9.7 X 15.3 cm

光州日報

2012년 08월 22일 (수)
02면 중합

“F1 입장권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조직위, 온라인 판매 최고 20%까지 할인

F1대회조직위원회가 21일 ‘2012 F1 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한카드와 함께 온라인(옥션티켓과 G마켓 티켓) 결제 시 일반회원은 10%, 탑스회원은 20% 할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종목에 F1 대회를 추가,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등이 대량으로 단체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12~18%까지 특별 할인한다.

2012 F1한국대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F1조직위는 관람객 서비스를 위해 케이팝(K-Pop) 콘서트를 금요일과 토요일 2회 연속 열 계획이다.

F1 입장권 소지자는 전남지역 골프장과 도내 유명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는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10.3 X 10.8 cm



지난해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장면. 양양 서킷 그랜드스탠드 앞을 마신들이 질주하고 있다. 전일본 자동차사

F1의 꽃 ‘서킷’

드라이버·머신의 질주... 마니아들 꿈의 무대 한국 전통미 강조한 영암서킷 세계 최고 수준

F1서킷은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는 마니아뿐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꿈의 무대다. 드라이버가 머신과 한 몸이 돼 필사의 도전을 하는 만큼 열정도 숨어 있다.

모터스포츠의 우승 경쟁에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변수인 서킷은 또 100여 년에 달하는 자동차의 역사에서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왔다. 종류도 다양하다. 엔진 힘이 좋아야 유리한 하이 스피드 트랙이 있는가 하면 연신 브레이크를 밟아 대느라 발목이 저러오는 다운스텝 서킷도 있다.

꿈의 서킷은 한국에도 있다. 바로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이다. KIC는 아시아에서 가장 특색있는

포뮬러원 경기장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이자, 최대 관중석 규모를 자랑하는 첨단 시설이다. 아름다운 영암호를 마주보는 천혜의 조망권과 한국의 혼을 담은 디자인, 세계 방향의 주행을 담은 독특한 구조의 KIC는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삼포지구에 위치해 있다.

KIC의 일부 레이싱 트랙은 일반도로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건설됐다. 싱가포르나 모나코처럼 기존 시가지 도로를 트랙으로 활용하는 스트리트 서킷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반면 KIC는 레이싱 트랙을 먼저 짓고 그 힘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도전이자

세계 모터스포츠계가 주목할 혁신적인 실험으로 인정받게 된다.

KIC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지어진 국제 기준의 레이싱 서킷이라는 점이다. 레이싱 서킷은 가장 서구적인 스포츠 시설이지만 KIC는 최첨단 모터스포츠 시설의 기능 위에 한국 전통의 멋을 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건축물인 메인 그랜드스탠드의 경우 지붕의 구조를 한옥의 처마선 단단 불수대 모양의 상징을 8개를 곳곳에 배치해 다른 서킷들과는 볼 수 없던 디자인을 연출했다. 또 선조들의 통수 수를 본떠 만들었다. 또 선조들의 통수 수를 본떠 만들었다. 또 선조들의 통수 수를 본떠 만들었다.

국내 모든 스포츠 시설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인 이 경기장은 13만여 명의

영암 서킷은
130,000
최대 수용인원(명)
16,000
그랜드스탠드(석)
5.615
트랙길이(km)
11
최속 방향 코너 수
7
우측 방향 코너 수

관중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메인 그랜드스탠드는 1만6000석 규모다. 트랙 길이는 5.615km. 이 길이는 현재 포뮬러원 그랑프리를 유치한 각국 서킷의 평균 길이인 4.89km를 훨씬 웃돈다.

서킷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너의 배치다. 스피드와 트랙의 긴다면 코너링 위주로 한 트랙이나, 아찔한 코너링 위주로 한 코너의 구성에 따른 코너링 위주로 한 코너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KIC의 코너는 왼쪽 방향으로 11개, 오른쪽 방향으로 7개가 배치됐다. 주행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또 KIC 서킷 트랙은 전체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구간별로 나뉘어 기록이 측정되는데 직선위주의 구간에서는 누가 빠르고, 반대로 코너 위주의 구간에서는 누가 강했는지를 쉽게 구분해서 팬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눈 구간을 세터라 고 한다.

제 1구간은 엔진 성능을 알아보는 최고 속도 구간. 이어 제 2구간은 코너이 도 중고속 구간. 제 3구간은 단박을 시험하는 마라톤 구간이다.

드라이버들은 1구간에서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주행을 하다가 다음 구간에 진입하기 위해 시속 100km 초반 대까지 속도를 줄여야만 한다. 2구간에 진입하면 코너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드라이빙 테크닉이 아니면 쉽게 통과할 수 없다. 3구간은 안전지대 없이 반호백이 바짝 붙어 있어 드라이버들이 가장 두려운 곳이다.

서킷은 박물관, 모터쇼와 함께 한 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재는 3대 축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국내 최초의 국제 자동차경주장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 그 답이 들어있다.

이영환 기자 hwang@nibbo.com

F1 브리핑 말도나도 주행 중 사고

지난 주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말도나도가 시범주행을 하던 중 사고로 행사를 중단했다. 말도나도는 베네주엘라인 최초로 F1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영웅으로 알려진 팀과 함께 6일간 고국을 방문한 말도나도는 베네주엘라의 2만여 팬이 집결한 가운데 시범 주행에 나섰지만 2번째 랩 직전주로 끝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돌출된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서스펜션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머신의 파손이 심해 F1 쇼키의 주행은 일단 중단됐다.

코발라이넨 거취 놓고 루머

레이터(옛 로터스)에서 3년째 F1 드라이버 생활을 하고 있는 코발라이넨이 2013 시즌에는 레이터가 아닌 다른 팀에서 활동하게 될지 모른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

지난 시즌 트롤리를 압도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올 시즌 전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간 코발라이넨은 내년 시즌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보렐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자우버와 맥라렌 등과 엮인 이적 루머에 휩싸이고 있다. 일단 자우버로 이적에 대해 코발라이넨은 "자우버가 올 시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못박고 있지만 "소속팀인 레이터의 정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 F1 호사기를 의 공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아메리카 서킷 영상 공개

올 시즌 5년만에 재개되는 미국 그랑프리가 열릴 텍사스 오스틴의 서킷 오버 아메리카 영상이 공개됐다. 이번엔 공개된 영상에 통해 대 형 구조물의 공사가 막바지에 달해 있고 트랙을 비롯한 토목 공사 역시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서킷이 때때 준비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나오는 오스틴 서킷은 고저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 2012 미국 그랑프리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올 시즌 제 19 라운드로 개최된다. 유튜브/2LA9A RL은 <http://youtube/2LA9A w7Se-0>

이영환 기자